

『阿彌陀經』의 淨土思想

康東均*

I. 序 論

死後の 세계가 존재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이미 日常의 범주를 벗어나서 종교의 세계로 나아간다. 여기서 『阿彌陀經』의 淨土思想을 논한다는 것은 이미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일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논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아미타경』의 정토사상을 논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지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미타경』의 이야기를 전개하면 당연히 정토사상으로 귀결짓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淨土思想>이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거기에 한국불교의 특징이 있다. 대승불교의 전개된 모습은 韓·中·日 三國의 불교사를 고찰하면 금방 그 특징을 알 수 있지만, 한국불교만이 中·日 兩國의 불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禪宗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는 선종 외에는 불교가 아니라고 당연한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래서 『아미타경』의 위상이 한국만이 낮추어져 있는 것이다. 많은 이야기는 본론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일반 신

* 동아대 철학과 교수

자에게 당연한 것처럼 『金剛經』을 들이대고, 장례식에서 『금강경』을 당연한 것처럼 독송하며 『아미타경』이 설자리를 잃은 것을 보면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대 한국 불교이다. 그래서 『아미타경』에는 어떤 부분이 정토사상이냐고 하는 물음이 여기에 내포되어서, 本人에게 그런 論題가 주어졌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미묘한 시각의 차이에서 출발하게 된 본 논문에서는 철저하게 『阿彌陀經』의 사상을 들어내어 풀어 헤치면서, 정토사상이란 이런 것이라고 하는 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阿彌陀經』의 구조적 特性

『佛說阿彌陀經』은 5세기 초에 鳩摩羅什이 번역하였다. 그 밖에도 玄奘이 650년에 번역한 『稱讚淨土佛攝受經』一卷이 있다. 산스크리트 원전과 티베트語 번역본도 現存한다. 산스크리트 원전은 영국의 종교학자 막스·뮐러와 南條文雄이 공동 출판한 교정본이 1883년에 발표되었다. 산스크리트 원전은 『佛說阿彌陀經』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유포되어 알려진 것도 이 『阿彌陀經』이다.

『아미타경』은 극락정토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功德莊嚴을 설하고 있다. 이러한 功德莊嚴은 국토, 의복, 음식, 그리고 육체나 정신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功德莊嚴을 널리 설하는 이유는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極樂淨土에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願樂(원요)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중생의 업인 작은 善根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루 내지 이레 동안 念佛한다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생이 이것을 믿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六方의 恒河沙諸佛이 廣長舌을 내어 三千大千世界를 두루 덮으면서 증명하고 있으며,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석존을 향하여, “매우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찬탄하고 있음은 매우 稀有한 일이다. 이 부분을 善導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다. “이 증명에 의해 중생이 왕생할 수 없다면 六方如來의 廣長舌은 한번 입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는 입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 혀는 썩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자신에 찬 믿음의 선언인가를 알 수 있는 말이다. 바꿔 말해서, 往生極樂을 의심하는 것은 六方의 恒河沙諸佛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되며, 왕생 극락을 믿는 것은 彌陀의 本願을 믿는 것이다. 미타의 본원을 믿는 것은 釋尊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석존의 말씀을 믿는 것은 육방의 항하사제불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阿彌陀經』은 믿음에 관해서 많은 시사를 하고 있지만, 六方의 恒河沙諸佛의 증명이 클라이막스가 된다. “이 五濁惡世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一切世間難信之法을 설하는 것은 甚難希有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매우 어렵고도 있기 어려운 일을 釋尊께서는 하셨고, 이 일은 六方諸佛마저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는 不可思議한 本願力에 근거하고 있음을 信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미타경』은 ‘俱會一處’의 사상을 가지고 화합정신을 도모하고 있다. 모든 중생이 마침내는 極樂淨土에서 모두 함께 만남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매우 깊은 사색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 淨土思想의 意味

1) 大乘의 意味

佛敎란 佛陀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衆生이 佛陀임을 自覺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된 종교이다. 佛陀임을 自覺한다는 것은 '成佛'을 의미한다.

佛敎가 佛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데에는 아무런 異見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모든 衆生이 成佛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는 많은 異見이 제시되며, 또 多義의 解釋이 가능하여진다. 다시 말해서, 成佛이란 人間 釋迦가 깨달음을 成就했다(bodhima a-ni adana)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모든 人間이 覺者(Buddha=佛陀)로 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 이것은 佛敎의 思想的인 始源임과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이다. 특히 大乘佛敎에 있어서는 成佛이 의미하는 바가 단지 形而上學的인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衆生救濟와 직결되어 있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관찰할 때 大乘의 意義가 더욱 명백하여진다. 다시 말해서, 成佛이란 釋尊이 過去因行時로부터 現世의 樹下成道에 이르기까지의 劬한 難行·苦行이 論理的으로 究明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樹下成道에서 鹿苑說法으로 移行하게 되는 大乘的인 轉廻를 통해서 얻어지는 無上等正覺(anuttara-saymaksam bodhi)에서 그 意義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成道한 [佛陀](Buddha)에서 說法하는 [如來](Tatha gata)로 이어지는 大轉廻로 說明되어진다. 龍樹가 『中論』의 [歸敬偈]에서 歸依의 대상으로 삼았던 [戲論(prapañ ca)을 寂滅시키는 吉祥한 緣起(prat tyasamutp da)를 가르치신 正覺者, 가

장 殊勝하신 說法者]가 바로 그 [如來]인 것이다.

佛敎의 入信은 歸依三寶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앞에서 龍樹가 하였던 [緣起를 說하신 佛陀에 歸命]하는 것으로서 成立되어진다. 佛陀가 樹下成道로 끝날 때에 거기에는 단지 [獨覺(Pratyeka-buddha=緣覺)]만이 存在하게 되지만, 說法하는 如來는 곧 說하신 法과, 그 法을 應聞하는 弟子를 그 안에 포함하게 되니 저절로 [三寶]를 갖추게 되어 歸依三寶를 成立시키게 된다고 하는 말이다.

2) 淨土思想의 두 가지 흐름

佛敎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成佛이다. 成佛이란 衆生이 스스로 主體의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衆生에게 부처가 될 가능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중생 자신이 스스로 [佛性的 存在이다]라는 것을 自覺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전제에도 불구하고 淨土敎의 흐름은 [佛性的 存在가 아닌 自己自身]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曇鸞, 道綽, 善導의 사상체계가 그러하며, 한국에 있어서의 元曉, 일본의 法然·親鸞의 사상체계가 그러하다. 일찍이 道綽은, 『安樂集』 가운데에서 불교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聖道門]과 [淨土門]이 있다고 규정했다. 말하자면, 전자는 聖道門이요, 후자는 淨土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淨土敎라 하더라도 반드시 佛性的 存在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廬山の 慧遠도 淨影寺의 慧遠도, 또한 嘉祥吉藏이나 天台智者에 있어서의 淨土思想도 佛性的 存在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天台의 常行三昧는 佛性的 存在를 자각하기 위한 念佛行이다. 여기서 말하는 念佛은 自力の 修行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方便이었다. 이렇

게 淨土敎 내지 淨土思想에도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自力的인 淨土思想과 他力的인 淨土思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엘리트 집단의 淨土敎와 凡夫敎濟의 淨土敎라고 하는 입장으로도 구별할 수가 있다.

초창기의 중국 불교에 있어서 淨土思想에 관심을 보여 淨土往生을 願했던 사람들은 關公則(?265~274?)·僧顯(?318~321?)·支遁(327~402) 등을 들 수가 있지만, 뒤에 중국 정토교의 시조가 된 것은 廬山の 慧遠(344~413, 또는 350~409)이다. 宗曉의 『樂邦文類』(1199년) 卷三의 [蓮社始祖廬山遠法師傳]에서는 慧遠을 정토교의 시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蓮社繼祖五代法師傳]에서는 慧遠을 이은 정토교의 계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一曰 善導師, 二曰 法照師, 三曰 少康師, 四曰 省常師, 五曰 宗曉師

이것을 받아 志磐의 『佛祖統紀』(1269년) 卷二十六의 [淨土立敎志]에서는, 慧遠 - 善導 - 承遠 - 法照 - 少康 - 延壽 - 省常이라고 정토교의 계보를 밝히고 있다. 志磐은 宗曉의 六祖說을 계승하면서 法照의 스승 承遠(712~802)을 덧붙여 다시 禪定融合思想을 주장한 永明延壽(904~975)를 덧붙이고 있지만, 宗曉와 큰 차이는 없다. 후대의 정토교의 계보를 보이는 자료도 똑같은 경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문제 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같은 정토사상이라 하더라도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慧遠과 善導를 일직선상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지 않고 모양만을 취함에 지나지 않다.

迦才(生沒年代未詳, 七世紀 後半에 活動)는 그의 著述인 『淨土論』의 冒頭に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上古의 先匠인 遠法師·謝靈運 등 모두 西境을 期한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홀로 一身을 좋게 할 뿐이다. 後의 학자는 承習할 바가 없다.

불교에서는, 특히 大乘佛敎에서는, [自利利他]·[自他一時成佛道]·[自未得度先度他]라고 하는 대명제를 제외하고서 말할 수 없다. 이 대승불교의 근원을 淨土敎 내지 淨土思想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惡人凡夫의 自覺으로서 佛性的 存在가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면서도, 더욱 중생구제에 몸을 내던진 先覺者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阿彌陀經』에서의 極樂과 衆生

[그 때에 부처님께서 長老 舍利弗에게 말씀하셨다. 이로부터 서쪽으로 십만억 불토를 지나 세계가 있으며, 이름지어 極樂이라고 한다. 그 국토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阿彌陀라고 이름한다. 지금 법을 설하신다.]

서쪽에 정토가 있다는 비과학적인 신화는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개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지옥이나 극락이 있다고 하는 것도 믿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행복은 저 산 너머에 있다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 가령 그 꿈이 깨어져도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극락과 같다. 그리고 서쪽에 극락이 있다고 하는 생각은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일 것이다.

지구는 타원형이며 태양의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한다. 그러니 서쪽으로 향해 나아가면 또 이 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나아가면 이라고 하는 가설이며 실제로 나아가서 얻은 경험

은 아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지구를 한바퀴 돌면 다시 여기에 돌아 오게 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몸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진실로 산다는 것과, 산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생각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인 것이다. 이 세상에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과 현실로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 산 너머에 이상을 찾는 것과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함께 이상주의임에는 변함이 없다. 아마도 사람인 한 이상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미 이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쪽의 극락이 의미하고 있는 것도 이른바 인생의 이상향을 설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지금 『아미타경』을 보면, [사리불이여, 십만억 불토를 지난 곳에 극락이 있다]고 설해지고 있다. 이 불토를 지난 곳에 라는 말은, 인생을 초월한 곳이라는 의미이며 어찌지도 못하는 죽음으로부터 생을 다하여, 라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는 인생의 피안에 눈을 뜨고, 인생의 마지막을 서쪽이라고 결정하는 곳에 열린 강력한 인생관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부처란 각각의 인생을 다한 사람이며 그 의미에서 중생들이 저마다 나아가는 길의 스승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무수한 것처럼 부처도 또한 무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에 십만억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아미타의 세계가 인생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토란 인생을 초과하여 모조리 경험한 끝에 열리는 세계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을 넘어서 극락정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인생을 초과하여 경험해서 그 실상을 발견하신 부처님의 말씀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르침으로써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을 우리들 자신의 말로써 이 인생의 끝에 극락이 있다고 수용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 마음이 우리들을 궁지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마음이 그런 환영이 십만억의 불국토로써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千變萬化하는 인생을 그리고, 꿈으로 보고, 십만억의 세계를 돌아다니며 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서쪽으로 향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몸이다. 아무리 마음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몸은 어리석고도 정직하게 인생의 현실로부터 한 걸음도 발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

우리들은 흔히 극락정도가 실로 있다고 하는 증명이라도 있으면 믿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지 않는가? 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후의 세계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가능하다. 사후의 극락은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그것이 이론이나 논리라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이 실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해도 정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의지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의 견해를 바꿀지도 모른다.

[사리불이여, 저 국토를 무슨 까닭에 이름지어 극락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세계에 있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피로움이나 육체적인 피로움이 일체 없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진실에 산다는 즐거움뿐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극락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옥은 있는 것일까? 지옥은 없다. 그러나 지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옥은 없는데도 만들어내는 것이라곤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지옥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없는 것에 대하여 두

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극락도 그런 것이다. 극락은 있다. 그러나 극락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극락은 만들려고 하면 사라져 없어지는 세계이다. 없어서는 곤란하다고 하여 만들어진 극락은 언젠가 만들어진 마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미타경』에 설해지는 극락이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여기에 대해서 세존께서는, [<저 世界>에는 <이 世界>에 있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육체적인 괴로움이 일체 없다. 그러니 극락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단지 거기에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진실에 산다고 하는 즐거움뿐이다] 라고 설하고 있다.

[사리불이여, 극락극토에는 七重의 欄楯, 七重의 行樹가 있다. 모두 네 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까닭에 저 나라를 이름하여 극락이라고 한다.]

정토가 보석이 가득 찬 곳으로 설해지는 데에서 단지 옛이야기에 나오는 가공의 세계로서 수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金銀 등의 財寶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한 재보로 가득 찬 것이라고 설해지는 이유도 납득할 수는 있다. 또, 보배라고 하면 경제적인 가치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美에 대한 동경을 만족시켜주며, 적당한 프라이드도 채워줄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역사를 돌아보면, 금 은 재보를 놓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처참한 死鬪를 계속해왔다. 그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역사는, 보석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극락정토에 그런 모두가 채워져 있다고 설해지는 것은 그로 인해서 정토에 왕생하고 싶다고 하는 願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들이 바라는 재물이 채워질 때가 있을까? 채워진 욕망은 다시 새로운 욕망으로 옮겨간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발전이며 건설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토가 그러한 재보로 채워진 것이라고 설해진 것은, 우리들을 거기에 유인하는 방편설이 아니라 인생과 정토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워질 것을 찾아 그리고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세계와 이미 채워져 있는 세계와의 사이는 차원이 다른 세계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 사리불이여 그 아미타의 세계에는 언제나 쾌락한 음악(天樂)이 연주되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곳이 어떤 곳인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동양인에게는 동양인의 말이 있고, 서양인에게는 서양인의 말이 있다. 또 지방에 따라 말이 각각 다르고, 직업이나 환경 인생관이나 교양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된다. 옛날에 좋아했던 음악이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수용되지 않는다. 또 젊은 사람들의 음악을 나이든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 사람의 業에 따라 말과 소리는 제각기 다르게 수용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토는 일체의 차별이 부정된다. 『아미타경』에는 언제나 天樂이 연주되어지고 있다고 설해지는 것도 그 음성의 體는 일체의 차별이 부정된 아미타의 願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다.

[사리불이여 저 나라에는 언제나 白鶴, 孔雀, 鸚鵡, 舍利, 迦陵頻伽, 共鳴鳥가 있다. 이 모든 새들이 晝夜六時로 和雅의 음을 낸다. 그 소리는 五根, 五力, 七菩提分, 八聖道分, 이러한 법을 演暢한다. 그 국토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두 부처를 염하고, 법을 염하고, 승을 염한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새들이 실로 최보의 소생

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 불국토에는 三惡聚가 없으며, 사리불이여 저 불국토에는 三惡道의 이름도 없다. 이것은 모두 아미타불이 法音を 널리 펼치기 위해 변화해 나타나게 한 것이다.]

극락세계에는 가장 부처되기 쉬운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諸佛을 찾아 공양하고 수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수행을 위한 실천항목이 바로 오근·오력·칠보리분·팔성도분이다. 여기에 四念處·四精勤·四如意足を 덧붙여 三十七道分이 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설해지는 수행법도 아미타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모두 아미타의 진실을 표현하는 나무아미타불 가운데에 수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 정토에 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미타가 새가 되어 불법이 깊고 깊은 것을 찬탄하여, 불법의 진실에 살도록 하라고 권하는 설법인 것이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찌하여 저 부처님을 아미타라고 부르는 것일까? 사리불이여 저 부처의 광명은 무량하고, 시방의 나라를 비추임에 장애 받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그 부처를 아미타라고 부른다. 또 사리불이여 저 부처의 수명은 무한하며, 그 나라의 인민도 수명이 무량하다. 그런 까닭에 아미타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아미타경의 가장 큰 특징인 無問自說의 형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어떤 질문도 없이 부처님이 스스로 자문자답하신 부분이 나오는 것이다. 사리불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부분이 전면으로 드러난다. 앞에서도 어찌하여 아미타의 세계를 극락이라고 이름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답도 하셨다. 물론 사리불은 대답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답이 없는 것이 답인 것이다. 사리불은 부처님이 묻고 부처님이 답

하는 대화의 세계에 참가하여 다만 조용히 부처님의 설법을 청문하고 있을 뿐이다. 사리불은 대화하는 부처님의 法界에 몸이 감싸여져서 스스로 思議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단지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다.

그 부처의 광명은 한이 없으며, 모든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비추면서, 어떤 것에도 장애 받지 않는다고 설하고 있다. 『無量壽經』에서는 아미타의 덕이 열두가지 광명으로써 찬탄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저 부처의 광명은 무량하고(無量光), 시방의 나라를 비추임에(無邊光) 장애 받지 않는다(無碍光)고 하는 12광명 가운데에 三光이 말해지고 있다.

지금 설해지는 아미타의 광명은 지혜이며, 스스로를 잊어버리거나 몸을 태워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흑에 침잠되어 잃어버렸던 자신을 깨우는 작용이다. 이런 아미타의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염불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善導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저 아미타불의 광명은 헤아릴 수 없고, 시방국토를 비추어서도 어떤 곳에도 장애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저 아미타불은 오로지 念佛하는 사람만을 비추어 그 광명의 攝取에서 버리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저 부처를 아미타라고 이른다.]

광명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만이라면, 아미타가 특히 다른 부처와 구별되어지는 까닭이 분명하지 않다. 거기에 오로지 염불하는 사람만을, 이라고 말하는 선도대사의 해석에 경청해야할 점이 있다. 물론 아미타의 광명은 無量, 無邊, 無碍이다. 그리고 아미타의 광명은 구원의 옛날로부터 두루 세계를 비추는 광명이다. 그것을 오로지 염불하는 중생만을 구한다고 한정하는 것은 염불이 사람들에게는 자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달빛이 이르지 않는 곳은 없지

만 그 달빛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비추이는 것이다. 달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달을 보지 않으면 달과 함께 하는 인생의 기쁨이나 슬픔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의 섭취에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아미타의 원은, 염불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써 중생에게 나타난다. 말을 바꾸어 하자면 염불하려고 생각하는 마음 외에 아미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아미타의 마음인 것이다.

아미타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는 이 부처의 광명과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무량을 의미하는 아미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한자로 음사한 아미타가 이 부처의 이름이 된 것이다. 그러면 광명과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지혜와 자비이다. 왜냐하면 광명이 있는 곳은 밝게 되고 그 광명이 크면 클수록 어두움, 즉 어리석음이 없어지므로 광명이야말로 지혜의 상징이 되고 그것이 무량하다면 영원히 어리석음은 사라지는 것이 되며, 이러한 무량한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라고 하는 문자로써 깨달음을 얻 자로써의 불타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명은 이 지상의 모든 존재에 있어서 유한하며, 따라서 죽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수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위에 존재되어서 애정을 주려고 하여도 아무래도 제한이 생기고, 자기의 생명의 제한이 있는 만큼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존재에게만 눈길이 가게 된다. 그러나 만약 무한한 수명이 주어진다면 모든 존재에 대해서 똑같이 애정을 줄 수가 있다. 그런 커다란 애정을 자비라고 부른다.

[사리불이여 실로 아미타불의 不可思議한 공덕을 찬탄한 것처럼 東方에도 阿 耨佛, 須彌相佛, 大須彌佛, 須彌光佛, 妙音佛, 이런 부처님을 비롯한 恒河沙數의 諸佛이 계셔서 각기 그 나라에서 廣長舌

相을 내어서 두루 三千大千世界를 덮어 誠實한 말씀을 설하신다. 그 대들 중생들이여 실로 이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는 一切諸佛이 護念되어지는 이 경을 믿어야 한다고.]

모든 부처들의 설법은 信을 권함과 함께 아미타의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들은 내가 부처가 된 것은 아미타의 보편의 법에 의한 것이라고 설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의 진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광장설상을 내어서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덮어 성실한 말을 설한다고 하는 것이다. 廣長舌相이란 부처의 모습을 나타내는 서른 두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것은 아마도 스스로의 의지를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 辨說自在能力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광장설상이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덮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의 설법이 전 세계에 구석구석까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제불은 아미타의 법에서 제불인 것이 증명되고, 아미타는 제불의 증명에 의해서 아미타인 것이 명백하여지는 것이다. 즉 제불이란 아미타의 본원에 의해서 일으켜진, 그리고 염불에 의해서 왕생한 사람들일 것이다.

4. 『阿彌陀經』의 信仰의 意義

阿彌陀의 本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無量壽經』에서는 그것을 [信樂하여 受持하는 것은 難中の 難이요, 이 難보다 더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阿彌陀經』에서도 [이 法을 믿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하였다. [如來가 出世할 때에 出世하기 어렵고, 如來를 보기도 어려우며, 諸佛의 經道는 難得難聞이다. 또 菩薩의 殊勝한 法·모든 波羅蜜도 또한 듣기 어렵다. 善知識을 만나 聞法하여 能行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믿고 信仰한다는 宗教心の 發露를 재

촉하고, 그 根據를 本願은 提示해 주고 있다.

本願思想은 釋尊에 의해서 自覺된 慈悲와 智慧가 바탕이 된 如來의 大悲心이 阿彌陀佛의 本願이라는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표현된 것이다. 그것이 如來의 大悲心の 發露라고 한다면, 인간은 단지 如來의 本願에 의지하기만 하면 구제되는 것이다. 여기서 구제되는 因마저도 衆生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如來에게 있는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그것을 元曉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往生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人間の 힘으로> 能히 그 正報莊嚴을 感得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 依報淨土를 感得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如來의 本願力の <能動的인 妙用으로> 인하여 비로소 隨感受用되는 것이다. <결코> 自業因力으로 成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無量壽經宗要』)

本願이란 衆生이 좌절의 밑바탕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純粹生命이며 絕對價值이다. 眞理 앞에서는 無力할 수밖에 없는 凡愚衆生이, 그를 [攝取不捨]하겠다는 如來의 本願(=約束)을 믿고 의지할 때에, 거기에 本願의 意義는 뚜렷이 現前하는 것이며, 정토왕생의 근거도 명시되어지는 것이다.

이상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大乘佛敎思想은 바로 淨土思想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結 論

解脫에 의해서 도달되는 경지를 열반이라고 부르며 그와 같은 涅

槃의 상태에 들어간 자를 佛陀, 즉 이 세상의 진리에 올바르게 눈뜬 자라고 부른다. 즉 불교의 목적은 인간이 수행에 의해서 이 불타에 도달해서 다시 윤회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의지가 강하고, 그 일생을 수행만으로 바칠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은 따로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반 대중에게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불타가 되는 것, 즉 成佛한다고 하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다. 거기에 나타난 것이 절대적인 구제력을 가진 위대한 불타이며 아미타불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스스로의 성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반 재가신자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 阿彌陀佛의 他力에 의한 구제의 길이다. 하지만 이 타력에 의한 경우에 부처가 되는 것은 살아 있는 이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아미타불이 우리들을 위해서 건립했다고 믿어지고 있는 서방극락세계에 있어서이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 西方極樂世界에 왕생하여 거기에서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往生·成佛이라고 하는 두 단계가 필요하게 된다. 왕생해서 성불하면 아미타불과 同體가 되며 이번에는 아직 구제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輪廻로 인한 再生이 아니라 大慈悲의 象徵이기 때문에 부처로서는 영원의 생명을 지니면서 사람들의 구제에 힘쓴다고 하는 것이 된다.

누구든지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한번은 죽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만약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이 맞이하러 와서 함께 극락세계에 데리고 가 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일까? 아미타경에서는 여기에서 六方世界에 있는 무수한 부처들이 석존과 똑같이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탄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간다. 즉 동방, 남방, 서방, 북방,

하방, 상방에 있는 무수한 불국토에 있는 부처들이 석존과 똑같이 아미타불을 믿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부처를 찬탄하고 있지만, 이른바 석존의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다.

이 경의 목적은 이것을 읽거나 듣거나 한 사람들이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마음에 두어 이 부처의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고 바라도록 하는 데에 있다.